

결핵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

“대한결핵협회는 학생들이 결핵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은 10월 4일(화)에 진행된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은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대한결핵협회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소개하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결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2011년 크리스마스 씬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외 결핵퇴치를 위해, 결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이웃사랑의 작은 정성으로 크리스마스 씬 캠페인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6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들의 결핵예방과 함께 결핵없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결핵병예방치료소 결핵관계자 방문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결핵병예방치료소에서 10.10(월)~10.14(금)의 일정으로 우리협회를 방문하였다. 1993년도



부터 시작된 양측의 상호 방문은 올해로 19회째를 맞는다. 양측의 관계자들이 매년 상호방문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결핵관리 기술의 향상 및 결핵퇴치단체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문영목 회장은 “매년 우리 대한결핵협회와 연변 결핵병방치소 관계자들이 이런 친교의 장을 갖고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는 전통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며, 나아가 더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업적으로도 확대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하였다.

BBS 불교방송 'CEO 초대석' 출연

“대한결핵협회는 국가의 결핵관리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결핵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CEO 초대석' 프로그램에 출연한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BBS 불교방송의 'CEO 초대석'은 성공한 CEO들을 초대해 성공비결과 삶의 철학을 들어보는 프로

그램에 출연한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BBS 불교방송의 'CEO 초대석'은 성공한 CEO들을 초대해 성공비결과 삶의 철학을 들어보는 프로

그램으로, 문영목 회장은 진행자와 함께 과거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결핵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취자들에게 결핵퇴치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2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가

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결핵의 빠른 발견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문영목 회장은 결핵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대한결핵협회와 크리스마스 썰, 그리고 개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미소꿈터 개소식 개최

대한결핵협회(회장 문영목)와 대한성공회(서울교구장 김근상)는 10월 18일(화) 16:30 미소꿈터(미래와 소망을 꿈꾸는 터전)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명순 국회의원, 전병울 질병관리본부장, 서정화 서울특별시 노숙복지시설회장, 모현희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장, 최용순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은 “미소꿈터는 노숙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미소꿈터는 매년 50~60여명의 노숙인을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숙식, 상담실 및 도서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 노숙자를 위한 전용실도 설치되어 있다. 개소식에 이어 대한결핵협회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울)는 임·직원이 연합,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거리캠페인과 첨단 결핵 검사 장비를 갖춘 One-stop 결핵검진 버스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다.